

화학제품 Q1 수출 40억달러 수준

산자부, 석유화학 36.5% 늘어 ... 무역수지 3달 연속 적자수령 “허덕”

높은 국제유가 탓에 2003년 들어 3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.

그러나 미국-이라크 전쟁에도 불구하고 3월 수출과 수입 모두 월간 기준 사상최대치를 기록해 내수경기 위축을 수출에서 다소나마 만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산업자원부에 따르면, 2003년 3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7.5% 늘어난 155억7200만달러, 수입은 32.9% 증가한 159억3400만달러로 잠정 집계됐다.

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3억62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고 1-3월 적자 폭은 8억4000만달러로 늘어났다.

국내 무역수지가 적자 늪에 빠진 것은 고유가로 원유, 가스 등의 수입액이 크게 늘어난 것이 주요인이다.

수출실적(2003.3.1-20)

(단위: 100만달러, %)

구 분	2002	증가율	비중	3.1-20	증가율	1.1-3.20	증가율	비중
전 체	162,471	8.0	100.0	8,612	12.9	36,363	21.1	100.0
중화학제품	134,341	10.4	82.7	7,231	14.3	30,784	23.0	84.7
○ 화학제품	15,210	7.7	9.4	896	24.4	3,733	28.7	10.3
- 석유화학	9,265	10.4	5.7	555	23.9	2,391	36.5	6.6
○ 석유제품	6,382	▽18.1	3.9	372	25.5	1,599	42.5	4.4
경공업제품	24,146	▽1.9	14.9	1,138	1.5	4,595	5.4	12.6
○ 플라스틱	2,244	12.1	1.4	115	10.6	486	18.5	1.3
○ 타이어	1,383	7.0	0.9	71	25.0	328	24.4	0.9
○ 섬유류	15,674	▽2.5	9.6	721	▽0.2	2,867	3.5	7.9

휴대폰 중국 특수는 여전히 무선통신기기 수출이 2002년 3월보다 44.8% 증가한 15억달러를 기록해 수출 1위 자리를 굳혔다.

고유가 덕을 본 석유제품(68.4%)을 비롯해 타이어(25.0%), 자동차(18.5%), 철강(15.2%), 일반기계(13.0%), 가전(10.8%), 플라스틱(10.6%) 등도 호조를 보였다. 반면, 수출 주력품목인 반도체(-7.3%)와 컴퓨터(-1.0%)는 부진했다.

석유화학제품 수출은 3월 1-20일 5억5500만달러로 23.9% 증가했고, 1월부터 3월20일까지는 23억9100만달러로 36.5% 늘어났다. 플라스틱제품도 3월에는 1억1500만달러로 10.6% 증가했고, 1-3월에는 4억8600만달러로 18.5% 늘었다.

3월 수출 호조는 원-달러 환율 상승(원화가치 하락)이 한몫했다는 분석이다. 북핵 여파로 원-달러 환율은 2월 초 1190원 선에서 3월 말에는 1250원대로 5% 이상 상승했기 때문이다.

<Chemical Journal 2003/04/07>